



2021년 3월 8일
1권 1호 (통권 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슈 브리프

Current Issue and Policy Implication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snuac.snu.ac.kr>

코로나19 사태와 한국 외교의 대응 방향

김용호(서울대 아시아연구소) kimyh1358@gmail.com

〈특집을 기획한 편집자 노트〉

이제 코로나사태는 방역전쟁에서 백신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아시아 각국이 누가 먼저 백신을 확보하는가, 백신 접종후 어느 나라가 먼저 집단면역에 성공하는가 등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한편 백신 개발과 생산에 성공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백신을 외교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현안과 정책>>은 아시아 각국의 백신 정치와 외교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들이 교훈을 얻고자 한다.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냐, 일시적 변화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작년 3월 11일에 코로나 사태를 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데 이어, 게오르기예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경제를 포함한 인류사회의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이번 사태의 국제적 파장에 관한 견해는 "근본적 변화론"과 "일시적인 변화론"이 충돌하고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일보 고대훈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사태를 "서양 우월주의의 종언"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패권 국가 미국의 사태 수습 실패,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모델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많은 사망자 발생, 한국·중국·싱가포르·대만의 사태 수습 성공 등을 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

면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양 4국이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인 피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조금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본다. 한편 Laurie Garrett(A former senior fellow for global health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은 이번 사태가 "세계 자본주의를 극적으로 새로운 단계(A Dramatic New Stage in Global Capitalism)"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분산된 상품 생산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하는 등 새로운 생산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Stephen M. Walt 하버드대 교수는 이번 사태이후 세계는 지금보다 덜 개방적이고, 덜 자유롭고, 덜 번영하게 될 것으로 본다. Kishore Mahbubani (distinguished fellow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s Asia Research Institute)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가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중국 중심의 세계화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최근 미국인들의 세계화와 세계자유무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된 반면, 중국은 오히려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부상에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이런 믿음은 중국이 1842년부터 1949년까지 100여년간 세계경제와 단절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이번 사태로 세계자본주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장차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프린스턴대학교 G. John Ikenberry 교수는 일시적으로 민족주의, 강대국 경쟁, 전략적 결별(decoupling) 등이 강화되겠지만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추세를 뒤엎는 개방적이고,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체제가 서서히 등장할 것으로 본다. 이번 사태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견해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번 사태를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가져온다. 둘째, 팬데믹이 국내와 국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국제사회는 적어도 당분간 다자주의보다 일방주의가 득세하고,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가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첫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국가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외교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경제적 이득과 공중 보건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국제무역이 줄어들고,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글로벌 공급사슬에 심대

한 변화가 예상되고, 글로벌 협력보다 민족주의적 고립과 국가주의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변화가 우리의 안보, 한미동맹관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진단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강대국정치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중간의 갈등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전략 경쟁시대에 한국이 당면한 딜레마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견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외교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을 비롯하여 동맹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는 미국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대미 외교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한편 코로나사태로 인해 한일관계는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코로나사태 이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징용공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간의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코로나사태가 가져올 강대국 정치의 리스크를 포함하여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중일 3국관계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3국간 협력체제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대국 정치 리스크에 대비해야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비롯한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비하여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기후 온난화, 도시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등장 주기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코로나19가 과거 메르스, 사스, 에볼라보다 더 심각한 것처럼 앞으로 전염력이나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

올 수 있다. 1940년부터 2004년까지 등장한 신종 감염병이 335개, 이 중 200개가 1980년 이후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신종 감염병이 다시 나타날 것이므로 앞으로 감염병 대응이 국가의 중대한 책무가 될 것이다. 이번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극복 방안을 비교적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제창하고 나서면 많은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포럼을 통해 한국의 방역, 진단, 치료 모델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노력

하자. 특히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전체주의적 통제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교적 신속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대응 방식을 선호한다. 또 우리 정부가 글로벌 포럼 외에 코로나 복구를 위한 다자간, 양자간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엔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기금”에 참여하고, 개도국에 한국의 진단 및 방역 시스템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글과 관련된 최신 자료

- 전재성. (2020). 『동북아 국제정치 특징과 새로운 미래의 전망』, 『다양성+Asia』, 10, <http://diverseasia.snu.ac.kr/?p=4598>.
- 박재완, 최기웅. (2020).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 『한국과 국제사회』 제 4권 4호. 한국정치사회연구소. 87-109.
- 김정환. (2020). 「코로나 사태 속 미국과 중국의 대외적 접근 및 향후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제 29권 10호. 한국금융연구원. 3-
- 배정원. 2020년 4월 5일. “코로나19, 대공황 수준 경제 위기, 세계질서 영원히 바꿔놓을 것”. 인터넷판.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507>.

Tag: Covid-19, 방역, 강대국 정치, 대미외교, 미중경쟁, 한중일, 국제협력

김용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kimyh1358@gmail.com

현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운영위원, 전 인하대 교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

저서: <<민주공화당 18년, 1962-1980: 패권정당운동 실패의 원인과 결과>>(아카넷, 2020); <<외교영토 넓히기: 대한민국의 수교 역사>>(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6); <<북한의 협상 스타일>>(인하대 출판부, 2004)



발행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전략연구센터 (<http://snuac.snu.ac.kr/issuebrief/>)

편집위원장: 김용호 **편집위원:** 이명무 **편집간사:** 박종홍 **편집조교:** 조대현, 정민기, 민보미

연락처: 02-880-2695, issuebrief@snu.ac.kr(원고 수집 책임자)